

정치권 ‘불공정 대선’ 논란 커진다

야, 현 정권 부정선거 책임론 집중 부각

여, “文-민주 중진 대선불복이냐” 역공

각종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하는 조짐이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 개입 의혹 속에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 일부 중진들의 ‘불공정 대선’ 또는 ‘부정선거’ 발언을 ‘대선 불복’으로 해석하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불복은 아니다”며 차단막을 치면서도 현 정권의 부정선거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최고 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 의원의 ‘불공정 대선 책임론’에 대해 “1년이 다 되도록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본뜻이 어디 있는지, 국정을 이리 흔들어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 대표도 “사실상 대선 불복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뭘 책임지란 말인가. 자기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불법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

당은 국가기관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혐의 불복 세력”이라며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처넣는 유신시대 논리”라고 맞섰다. 전병현 원내대표는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려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며 은폐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양당의 전략기획본부장(전략홍보 본부장), 대변인 등도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란히 출연해 공방을 리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에 대해 “치고 빠지기를 하다가 드디어 대선 불복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주장에 “저희는 그렇지 않다”면서 “대선에 불복이거나, 아니나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응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혀 아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저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란히 출연한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대선 불복 할 방법이 있느냐”며 불복론을 부인하면서 “초집은 부정선거거나 아니나이며, 부정선거인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경기도 화성 오일용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46차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감 브리핑

“문화재청 반대 불구 ‘광주호 둑 높이기’ 강행” 배기운 의원

‘광주호 둑 높이기’를 추진중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촌공사가 광주호 둑을 1.6m 높이는 것을 전제

로 농경지 142필지 12만210㎡에 대한 보상을 실시, 전체(92억원)의 94%에 달하는 87억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농지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토양성분 조사를 한 결과 산성도, 염기 초과 등에서 대부분 부적합 결과가 나



“4대강 둑높이기 대기업 앓아서 2600억 벌어” 김영록 의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입찰한 대기업이 99.9%로 입찰 후 43.6% 금액으로 하도급을 줘 약 2600억여원의 이익을 창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모두 65세로 주택연금 60세보다 5세가 많다. 더욱이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촌현실에서는 부부간 연령차이

정감사에서 2013년 현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터키발주 9개 지역의 총 도급액은 4661억원이나, 하도급액은 2033억원으로 평균 하도급률은 43.6%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낙찰자인 삼부토건·삼성중공을 창겠다는 계획이다.



“까다로운 농지연금제도 지급조건 개선해야” 김승남 의원

농지연금제도가 주택연금에 비해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수령기준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모두 65세로 주택연금 60세보다 5세가 많다. 더욱이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촌현실에서는 부부간 연령차이

가 많이 나 농지연금 가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주택연금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하는데 반면 농지연금은 실거래가격 평균의 50~60%에 불과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연금액이 많이 감소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



국감 인물

민주당 박혜자 의원

고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 종 한 사람만 가입기준 연령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담보평가기준도 실거래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서 공동 경정기준’의 9개 심사 관점 중 동해 표기 누락, 표절, 친일 독재 미화 등으로 6개 심사 관점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검정합격된 것인지를 추궁해 교육부장관을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선 박 의원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가장 날카로우면서도 국감 시작 전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감에서 교육학 교과서가 ‘교과용

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37.4%인 울산이었다고 밝히는 등 무상급식을 국감의 이슈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냈다. 그는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직전 정부는 공문서 위조 발표로 광주시민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지적한 뒤 정부보증서 원본으로 대회를 유치했다는 사실과 광주수영선수권 대회가 경제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 문체부 관계자와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역사교과서 왜곡·무상급식 칼날 추궁



수기동 제일OP 901호

- ▶ 분양 평수 53P
- ▶ 20층 건물중 9층 코너, 창가, 전망좋음
- ▶ 시세 -1억 7000만원
- ▶ 매매가(일시불 조건)-1억 2000만원

오피스텔 매매

주인 직매 H. 010-4667-9300

수기동 제일OP 2001호

- ▶ 분양 평수 77P
- ▶ 20층 건물중 20층 코너, 창가, 전망최고
- ▶ 시세 -2억 5000만원
- ▶ 매매가(일시불 조건)-2억 2000만원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사정상 “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P, 건물 480P,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P, 2~5층 각 100P)
- ▶ 감정가 / 시세 -23억원
- ▶ 매매가 -22억원(일시불 조정가)
- ▶ 대 출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이권비 - 없음(법인체 양도 양수)
- ▶ 주 소 - 순천시 왕지동 872-6번지

주인 직매 H. 010-4667-9300